

# 도내 제조업체 체감경기 '기대 반·우려 반'

### 전북상협 "사드문제 등 대외 불안과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 등 현안 문제 해결 '급선무'"

최근 우리경제는 정치·사회적 불안 요인이 해소되고 새정부 출범으로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중국 사드, 북핵 문제 등의 불안정한 대외변수와 현대중공업(주) 군산조선소 가동중단에 따른 지원 대책미련 등 지역 현안 문제로 지역경제의 완전 회복에 대해서는 다소 시일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북상공회의소의회가 도내 116개 제조업체에서 회수된 조사표를 대상으로 분석한 '2017년 3/4분기 전북지역 제조업체 기업경기전망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업경기실사지수가 '94'로 조사돼 전분기(79) 대비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나, 2015년 2/4분기 이후 9분기 연속 기준치(100)를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17년 2/4분기 실적지수는

'85'로 조사돼 제조업 생산 증가세가 꾸준히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체감경기를 뜻하는 BSI가 기준치 100 이상이면 이번 분기보다 다음 분기에 경기가 더 좋아질 것이라 전망한 기업이 많다는 뜻이고, 100 이하는 그 반대를 의미한다.

업종별 전망치는 음식료(118), 자동차(100), 종이나무(100) 업종에서 경기가 개선되거나 유지될 것이라 응답이 우세했지만, 섬유유복, 화학, 금속, 비금속, 전기전자, 기타 등의 나머지 업종 대부분이 기준치를 하회한 것으로 조사됐다.

매출 유형별로는 수출기업(96)과 내수기업(93) 모두 기준치를 넘지 못하면서 경기 악화를 우려했다.

도내 수출기업들은 세계경제에 혼동이 불고 있지만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미 금리 인상에 따른 신흥국의 수입

수요 위축 등의 리스크로 큰 폭의 회복세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내수기업의 경우에도 견고하지 못한 내수 회복세와 가계부채 등의 불안요인으로 인해 다음 분기에도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향후 경제상황이 비관적인 것만은 아니다.

세부 항목별 전망치는 매출액(107), 설비투자(108), 자금조달(96) 모두 상승세를 보여 지금 여건은 다소 어렵겠지만 꾸준한 투자가 예상된다.

올 하반기 취업문은 지난해 하반기에 비해 좀 더 넓어질 전망이다.

조사한 제조업체 중 신규 채용 계획이 있는 곳을 추려 신규채용 BSI를 집계한 결과, '100'을 기록하며 기준치를 넘었다. 신규채용의 분야는 생산기술직이 56.2%로 가장 많았고, 이어 사

무직(15.7%), 연구개발직(13.2%), 영입직(10.7%) 순이었다.

전북상공회의소의협회 이선홍 회장은 "세계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미 금리 인상에 따른 신흥국의 수요가 위축되는 등 여러 리스크가 있고, 지지부진한 고용실태와 실업을 증가로 내수가 좀처럼 회복세를 보이지 못해 기업들의 시름은 여전히 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처럼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지자체는 기업 경영과 관련된 규제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고, 전북경제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에 따른 지원 대책 마련 등 현안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인재용 기자

## 전북혁신도시 최초 '테라스샵' 오픈

### 인근상가보다 분양가·임대료 20%이상 높게 형성

최근 주택시장은 물론이고 상가 시장에도 테라스(Terrace) 특화를 내세운 상품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테라스상가는 매장 내부와 테라스 사이에 테이블 등을 두는 등 공간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게 돼 임차인 및 소비자들에게 모두 만족도가 높아 실제 인근상가보다 분양가나 임대료가 20%이상 높게 형성되고 있다. 특히 테라스로 인해 건물의 외관까지 독특하게 바뀌게 돼 지역을 대표하는 명소로 자리매김 하는 경우도 많아 인기가 높다.

업계관계자는 "아파트 시장뿐만 아니라 상가 분양시장에서도 테라스 설계는 편리함과 희소성으로 인기가 높다"며 "때문에 최근 상가 분양시장에서도 테라스 설계를 적용한 다양한 상업시설이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 혁신도시에서도 이처럼 트렌디한 테라스 상가가 신축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전북 혁신도시에 연면적1만600㎡

규모 (지하2층-지상6층)로 신축중인 테라스 특화상가인 '테라스샵'은 건물4면이 도로에 노출돼 테라스의 장점을 극대화 했다.

또한 이러한 독특한 외관디자인 외에도 지하수개발, 전층공용부 LED조명기구설치, 태양광자개발진, 주차관리시스템, 공용부인테리어 등 입주점포의 관리비절감과 영업활성화에 필요한 기능적 부분이 강화된 부분이 눈여겨 볼만하다.

특히 주차안이 심각해지고 있는 전북혁신도시 내에서 법정주차대수의 3배에 달하는 96대의 주차공간 설치로 주차 가용율을 높여 점포영업의 활성화를 도모했으며, 남측으로 공용주차장부지와 접하고 있어 도보 및 차량이용자들이 편리하다.

전북혁신도시에서 최초로 선보이는 테라스상가인 '테라스샵'은 지난 8일 혁신도시 엠카운티 오피스 빌1층에 분양홍보관(063-222-0150)을 오픈했으며, 사업설명회에 많은 인파가 몰려 뜨거운 관심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재용 기자

## "장마철 야생버섯, 먹기 전에 식용 여부 따져야"

### 농진청, 독버섯 중독사고 발생 따라 주의 당부

농촌진흥청은 여름에 독버섯인 붉은 사슴뿔버섯을 약용버섯인 영지로 잘못 알고 채취해 우려먹거나 말려 줬다가 차로 끓여 먹고 치명적인 사고를 당하는 사례가 발생해 각별한 주의의를 당부했다.

붉은사슴뿔버섯에는 곰팡이 독소 중 가장 맹독성인 트리코테센이 있다.

이 독소는 1891년 러시아에서 처음 보고된 티(T)-2의 진균독소이며, 생화학 무기로 사용될 정도로 소량으로도 급성중독이 되고 치사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고돼 있다.

특히, 어린 영지 또는 잘라서 말린 영지와 잘라서 말린 붉은 사슴뿔버섯의 색깔과 모양이 비슷해서 구분이

어렵다.

이 버섯은 6월에서 10월까지 우리 생활주변인 동네 야산이나 도 시내 생태 숲 등 활용수 그루터기에서 쉽게 눈에 띄며 특히 서울, 경기, 강원 지역에서 중독사고 발생률이 높았다.

지난 2008년부터 최근까지 이 버섯으로 인해 6명이 사망했고, 일부 환자는 퇴원 후 후유증으로 의료기관의 치료를 받아야 했다. 해마다 2명~3명 정도가 이 버섯에 중독돼 지각력 변화, 백혈구와 혈소판 감소, 얼굴 피부의 손상, 탈모, 언어 장애, 재생불량성 빈혈증 등의 치명적인 증상을 나타냈

이와 함께 국내 야생버섯 중 인명피해 사례가 보고된 독우산광대버섯, 개나리관대버섯 등도 이 시기에 전국에 많이 발생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이 버섯들은 6월에서 10월까지 혼합림 내 낙엽토양이나 아열장 등에서 쉽게 볼 수 있으며 영주, 문경 등 경계 눈에 띄며 특히 서울, 경기, 강원 지역에서 중독사고 발생률이 높았다.

갓, 주름살, 대, 대주머니, 턱받이를 모두 가지고 있으며, 주름살이 흰색을 띠는 버섯류들이다.

버섯을 섭취한 이후 6시간~24시간 이 지나면 중독증상이 나타난다. 3일~4일 후 황달, 의식장애, 저혈당증, 혼수 등 간부전증의 징후를 보이며, 신부전증이 동반되는 경우에는 사망하기도 한다.

대부분의 독버섯 중독 사고는 과학

적 근거가 없는 식용버섯과 독버섯의 구분법 때문에 발생한다.

일반인이 버섯의 생김새와 질감 등으로 독버섯과 식용·약용버섯을 구분하기 어렵다.

또한 중독사고 발생 시에는 경험적 치료나 민간요법은 삼가고, 즉시 의료기관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병원에 갈 때는 의사가 정확히 진단해 치료할 수 있도록 중독환자가 먹었던 독버섯을 반드시 가져가도록 한다.

농촌진흥청 석순자 농업연구사는 "장마가 시작되고 비온 뒤 전국 산과 들에 많은 야생버섯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채취한 버섯은 먹기 전에 전문기관에 의뢰해 식용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 신보, 예비창업자에 최대 3억원 투·융자 복합 지원

신용보증기금은 정부의 건강한 창업 생태계 조성 정책에 부응하고, 우수 기술과 창의적 아이디어를 갖춘 예비창업자의 원활한 사업화를 돕기 위해 예비창업자 투자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지난 3월 창업기업 육성 플랫폼인

스타트업 네스트(Start-up NEST) 프로그램을 도입해 '유망창업기업 발굴·액셀러레이팅·금융지원·성장지원'의 4단계 융·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보는 그동안 예비창업자에게는 신용보증을 통해서만 자금을 지원해 왔다.

그러나 이번 예비창업자 투자프로그램 도입으로 창업이전 단계부터 투·융자 복합지원을 통해 최대 3억원의 자금 확보가 가능해져 우수 기술과 아이디어를 갖춘 예비창업자의 안정적인 사업과 추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대상은 신보의 스타트업 네스트 기업으로 선발되거나 정부지원 창업보육프로그램의 지원대상자로 선정되

어 추천된 예비창업자 등이다.

신보 관계자는 "예비창업자 투자 활성화를 위해 신보 자체적인 창업육성 플랫폼뿐만 아니라 타 창업보육기관에서 추천한 예비창업자에게도 제도를 개방했다"며 "간접한 창업생태계 조성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우수 예비창업자에 대한 투·융자 복합지원을 활성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 전북은행, 사랑의 삼계탕 나눔 봉사활동 실시

전북은행지역사랑봉사단은 11일 전주 덕진구에 위치한 금암노인복지관에서 '사랑의 삼계탕 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전북은행 최강성 노조위원장, 김승수 전주시장, 전주시 자원봉사센터 황의욱 이사장, 금암노인복지관 서양열 관장 등이 참석해 행사를 축하했다.

초박을 하루 앞두고 전북은행노동조합이 주최하고 전주시자원봉사센터와 금암노인복지관이 주관한 이날 봉사활동은 연일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 속

에서도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돕고,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전북은행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장에는 전주지역 독거어르신 및 소외계층 5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고, 전북은행 최강성 노조위원장, 김승수 전주시장, 전주시 자원봉사센터 황의욱 이사장, 금암노인복지관 서양열 관장 등이 참석해 행사를 축하했다.

/인재용 기자

## 우리동네 무인주차장 어디에 있을까?

주차하고 구경하고  
무인주차장에 주차하면  
시간도 절약되고 편리합니다.

**[전주시 무인주차장 안내]**

- 서부신시가지 도형열**  
전주시 완산구 흥산북로 75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노송천 주차장**  
전주시 노송여울2길 108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덕진광장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덕진광장로 3  
(239-2562)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실내체육관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관산북로 308  
(251-1264)  
(연중무휴) 4,000원 기본(30분):500원, 추가(15분):250원
- 서부신시가지 KB은행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1길 4-13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